천년을 세우다
묘연계좌 : 농협 301-0248-0882-41
예 금 주 : 아름다운 동행
대한불교조계종 미래본부

현대불교 30

창간 30주년
1994~2024

세계 최고의 불교대학!
동국대학교 인재불사에 함께 해주세요
동국대학교 dongguk university
후원계좌 : 신한은행 140-000-649193 (예금주: 동국대학교)
후원문의 : 02-2260-3300(동국대학교 대외협력처)

1994년 10월 15일 창간 주1회 발행 제1469호 hyunbulnews.com (불기 2567년 음력 12월 21일) 2024년 1월 31일 수요일



월정사 찾은 IOC…"한국불교 원더풀"

한국불교문화사업단(단장 원명 스님)이 2024 강원동계청소년올림픽의 성공적인 개최를 기원하며 국제올림픽위원회(IOC) 위원 및 관계자를 평창 월정사로 초청, 사찰음식 만찬행사를 열었다. 월정사 주지 정념 스님은 "IOC위원 여러분들의 노력에 힘입어 청소년동계올림픽에 참가하는 전 세계 청소년들 또한 '공존과 화합으로 여는 평화로운 미래'를 만들어갈 다음 세대 주역으로 성장할 것"이라고 격려했다.

김내영 기자 · 사진제공=한국불교문화사업단

"제도정비·문화전승으로 태고종 미래 열겠다"

태고종 총무원장 상진 스님 신년기자회견

신중일 기자 motp79@hyunbul.com

"올해 태고종의 슬로건을 '미래를 열다, 조화와 화평의 세상'으로 정했습니다. 이는 희망과 도약의 마음을 담아 미래로 나아가기 위한 염원을 담은 것입니다. 우리 종단은 이 슬로건에 맞춰 종책과 불사를 전개해 나갈 계획입니다."

태고종 총무원장 상진 스님<사진>은 1월 24일 서울 종로 하림각에서 신년기자회견을 열고 올 한 해 추진할 주요 종책과 사업 계획들을 발표했다.

이날 상진 스님은 △종책 사업 시스템 구축 △종조 태고 보우 국사 선양사업 △국제교류사업 확대 △전법교화 및 사회구호활동 전개 △문화유산 활용을 위한 대정부 정책 제안 등을 종책 과제로 제시했다. 내부로는 제도를 정비해 종단 운영 시스템을 구축하고, 문화유산 활용과 국제사업 전개로 종단 외연을 강화하겠다는 것이다.

상진 스님은 "과거 태고종은 시스템에 의존하기보다 그때그때 임기응변식으로 종책을 펼치다 보니 집행부가 바뀔 때마다 단절과 혼란을 야기했다"며 "이를 불식하기 위해 모든 종책은 시스템에서 이루어진다는 생각으로 각 분야마다 제도정비를 추진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종헌종법의 상호 충돌과 모순점 등을 중앙종회의 협조를 얻어 정비하고 조례와 규칙, 시행령 등을 현실에 맞게 수정·보완하겠다는 것이다.

상진 스님은 "시스템이 만들어지고 정착된다면 소납이 총무원장의 임기를 마치고 물러나더라도 후임자가 그 시스템에 의해 모든 종단사업을 단절없이 계승해 추진해 나가게 될 것"이라며 "발전적으로 또 창의적으로 사업을 개발해 나갈 것"으로 기대했다.

새로 신설된 교육원과 태고문화유산전승사업단을 통해서는 승려교육과 문화유산 발굴을 추진한다. 그간 태고종은 종도교육을 총무원 교무부에서 실시해왔으나, 교육원이 신설됨에 따라 종도교육 전반을 교육원이 담당하게 됐다.

태고문화유산전승사업단은 전통문화유산의 보전, 관리 및 활용을 위한 종단 전문기구로서 향후 글로벌 시대에 맞는 문화콘텐츠 개발·발굴, 문화유산을 활용한 전법 프로그램을 개발할 계획이다.

상진 스님은 "태고종은 정말 많은 유·무형문화유산들이 있지만, 이를 활용한 국고사업들이 진행되지 못했다. 총무원장 당선 후 살펴보니 종단협 부회장 종단들의 1/3 정도 밖에 되지 않는다"면서 "태고종 유·무형문화유산들을 일제조사해 현대적 전승 방안을 마련하고 종단을 발전시킬 수 있는 사업들을 전개하려 한다"고 밝혔다.



"임기응변식 종단 운영 종식" 선언
제도 정비 통한 운영시스템 구축
종단 유무형유산 일제조사 추진
국제활동, 불사로 종단 외연 확대
"군승 파견 추진…군포교 나설 것"

이를 위해 상진 스님은 △용궁사 인천국제명상문화체험 전승관 건립불사 △태고종 유·무형문화재 정밀조사 △태고종 영산재 해외 공연 등을 추진하며, 대정부 문화 정책으로 제안하겠다는 방침이다.

이날 상진 스님은 적극적인 전법 교화 활동도 예고했다. 특히, 육해공군 전 장병을 대상으로 적극적인 군포교를 전개할 뜻을 밝혔다.

상진 스님은 "현재 군승 파송은 조계종 위주로 이뤄지는 중이지만, 현재 군승 부족 현상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태고종도 군승으로 나아가고 싶은 인재들이 많다"며 "태고종도 군포교의 일익을 담당할 수 있도록 군승 참여를 요청하고 군승단을 만들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상진 스님은 종단 차원의 국제행사와 불사 등을 통해 태고종의 위상을 강화하고 외연을 넓히겠다는 계획도 내놨다. 스님은 "태고종단이 과거 우물 안 개구리 식으로 국내에서만 활동하는 것에 국한됐는데 국제적으로 종단사업을 확대해 나갈 방침"이라며 "한 예로 올해 태고종은 중국불교계와 공동으로 국제세미나를 개최할 예정에 있다. 이는 태고종이 한국불교의 정통종단임을 확인시켜주는 계기가 될 것이고, 한중불교의 바람직한 관계를 정립시켜주는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종조 태고 보우 국사를 선양하기 위해 태고문화축제를 확대하고, '태고문학예술상'을 제정해 불교의 평화와 화합정신을 담고 있는 작품을 시상한다는 게 상진 스님의 계획이다.

상진 스님은 "다종교·다문화 시대, 태고종은 계층과 세대 간 조화를 이루면서 평화와 화합의 기틀을 다져나가는 전법교화를 펼쳐나갈 것"이라고 다짐했다.

범어사 주지 정오 스님 임명

총무원장 진우 스님 "부산불교 발전" 당부



조계종 제14교구본사 금정총림 범어사 주지에 정오 스님<사진>이 임명됐다.

총무원장 진우 스님은 1월 24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4층 접견실에서 지난 22일 임회를 거쳐 주지후보로 추천된 정오 스님에게 주지 임명장을 수여했다. 진우 스님은 "금정총림 범어사는 부산불교의 중심이 되는 사찰이다. 부산지역 불자들의 신심이 더욱 돈독해지도록 신경 써달라"며 "방장스님을 잘 모시고 대중 화합을 최우선으로 노력하라"고 당부했다.

이에 정오 스님은 "방장스님과 문중 어른스님들을 잘 모시고 대중과 소통하면서 부산불교가 발전하도록 힘껏 노력하겠다"며 "종단 숙원사업에도 적극 동참해 한국불교 중흥에 힘을 보탤 것"이라고 답했다.

정오 스님은 벽파 스님을 은사로 1990년 수계했다. 극락암 호국선원, 서운암 무위선원 등에서 10안거 이상 성만했다. 제15~16대 중앙종회의원을 지내고 부산 가야사, 장안사, 고불사 주지 등을 역임했다.

윤호섭 기자

본지-생명나눔 공동기획 업무협약

창립 30돌 양 기관 '생명나눔운동 확산' 다짐



생명나눔 이사장 일면 대종사(사진 오른쪽)와 본지 대표이사 혜도 스님이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있다.

사단법인 생명나눔실천본부(이사장 일면 스님)와 현대불교신문(대표이사 혜도 스님)이 1월 23일 생명나눔실천본부 법인사무실에서 '생명나눔운동 홍보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올해로 창립 30주년을 맞은 양 기관이 생명나눔 문화 확산을 위해 뜻을 모은 것이다. 이에 따라 현대불교신문은 생명나눔실천본부의 주요 사업을 연간 기획특집으로 보도한다. 양 기관은 지난해에도 관련 업무협약을 맺은 바 있다.

생명나눔 이사장 일면 스님은 지난해 업무협약이 생명나눔 운동 확산에 도움이 됐다고 강조하면서 올해에도 서로 힘을 보탤 것을 당부했다. 스님은 "(이번 협약은) 양 기관이 서로 30주년을 맞아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함께 잘해보자는 취지를 담고 있다"며 "어떻게 하면 부처님 말씀을 잘 전할 수 있는지가 중요하다. 올해 역시 한 생명이라도 더 살리자는 생명나눔의 의미를 더 많은 사람들에게 전해달라"고 말했다.

현대불교신문 대표이사 혜도 스님은 "신문사는 지난 몇 년간 생명나눔실천본부와 협약을 통해 공동으로 생명나눔 문화 확산에 힘써왔다"며 "모든 생명을 살린다는 부처님 가르침과 생명나눔실천본부의 취지가 잘 구현되도록 힘을 보태겠다"고 화답했다.

윤호섭 기자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 국가무형유산 제50호 영산재 보존회 부설

옥천범음대학 2024학년도 신(편)입생 모집안내

옥천범음대학은 중요무형유산 제50호 영산재 부설기관으로써 1968년 옥천범음회로 시작되었습니다.
1973년 중요무형유산 제50호 '범패'로 지정, 1987년 '영산재'보존회로 단체 지정되고 2009년에는 유네스코 인류문화유산에 등록되었습니다.
불교의식, 불교음악, 불교무용의 전문성과 전통성을 높이고, 인재 양성을 위해 다음과 같이 일반인 및 학승을 모집합니다.

교 과 과 정

학 과		교육 내용	요일	시간	모집인원	담당교수
1학년	상주권공	상주권공 Ⅰ	월	오후1시~5시	○○	마일운 스님
2학년	상주권공	상주권공 Ⅱ	수	오후1시~5시	○○	김태호 스님
3학년	각 배	각 배	목	오후1시~5시	○○	조인각 스님
4학년	영 산	영 산 재	금	오후1시~5시	○○	이기봉 스님
불교의식 이론		영산재의 불교예술적 특징	화	오후1시~4시	○○	심만춘 스님

※상기 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동이 있을 수 있습니다.

■ 응시자격 | 수 료 과 정 : 승려 및 포교사, 법사, 재가불자, 관련학과(음악,무용과)등 일반인
편입학과정 : 동일계열 상주권공 수료자
■ 제출서류 | 수 료 과 정 : 입학원서(본교소정양식) 1부, 주민등록등본 1부, 반명함판 사진 3매
승적증명서 및 수계증 사본 1부
■ 전형일정 | 2024년 1월 1일 ~ 2월 28일
■ 개 강 | 2024년 3월 첫째주 3월 4일 (월요일)
■ 전 형 료 | 50,000원(학생회비)
■ 원서교부 및 접수처 | 본교 교학처 및 전화 접수 홈페이지 접수
■ 특 전 | 1. 졸업자에게는 대한민국 국가무형유산 제50호 영산재보존회 회원 및 준회원 자격을 부여하고 기능이 인정되면 전수생 지정
2. 성적우수자에게 각종 장학 혜택 부여, 국내외 공연시 우선 선발

국가무형유산 제50호 영산재 보유자 김구해 보존회 부설
옥 천 범 음 대 학 장 김 향 천

03721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봉원사길 120
Tel : 02)392-3234 Fax : 02)392-3239 홈페이지 : www.okchunbud.kr/